주제회의
성소수자

기후위기를 퀴어링하다

정민우
[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조교수]

페미니스트/퀴어 기후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의 효과는 불평등하며 또 앞으로도 불평등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. 기후변화는 이미 존재하는 계급, 인종, 젠더, 섹슈얼리티와 같은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뿐 아니라, 고용, 주거, 건강 및 깨끗한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가능성, 또한 안전이나 소속감과 같은 감각에 있어 특히 소수화된 여성 (예컨대 빈곤층 여성, 유색인종 여성) 과 퀴어/트랜스 집단의 삶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것이다. 이와 같은 기후 불평등의 글로벌한 스케일과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의 페미니스트/퀴어 활동가들에게 주요한 과제로 부상했다. 이 발표는 어떻게 페미니스트/퀴어 관점에서 기후 불평등을 이해할 것인지, 또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향한 활동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성애규범적/재생산중심적인 미래를 어떻게 재사유할 것인지에 관해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에 관심있는 연구자, 활동가,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시도이다.